

NFT 거래 활성화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손지영 연구원

요약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 인증서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임. 최근 NFT에 대한 관심이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NFT가 지속성을 가지고 유의미한 자산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리스크에 대비하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사진, 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소유권 인증서임¹⁾
 - NFT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사진, 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파일을 토큰화한 것임²⁾
 - 일정한 비율로 교환이 가능한 물리적 화폐, 암호 화폐와 달리, NFT는 저장된 디지털 파일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 불가능함
 - NFT는 발행부터 거래 내역까지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토큰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위·변조가 어려워 사진, 영상, 음악과 같이 복제가 쉬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인증서로 활용되기에 적합함
- 최근 NFT에 대한 관심이 예술 분야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며 NFT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³⁾
 - 2021년 3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Mike Winkelmann의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 달러에 거래된 이후 NFT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⁴⁾
 - 세계 최대 NFT 거래시장인 Open Sea에서의 2021년 8월 NFT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함
 - 암호 화폐 거래소 FTX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Dolphin Entertainment는 각각 NFT 기술 개발 및 거래 시스템 구축, 콘텐츠 생산 및 마케팅을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NFT를 활용하기 위해 협력함⁵⁾
 - 미국 스포츠 분야에서는 NFT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포츠 수집품을 출시하는 등 NFT의 수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1) <https://generalliabilityinsure.com/>

2) 이더리움 홈페이지(<https://ethereum.org/>)

3) Nasdaq(2021. 8. 3), "NFTs Are Going Mainstream as Trading Volume Reaches New Record Level"

4) TIMES(2021. 3. 22), "NFTs Are Shaking Up the Art World—But They Could Change So Much More"

5) Policyholder Pulse(2021. 6. 30), "Covering the Highlight Reel: The Need for Insurance Options to Protect NFT Owners"

- 미국 프로 야구 리그 MLB는 수집용 카드 제작사 Topss를 통해 NFT 형태의 야구 카드를 출시하였으며, 프로 농구 구단 Dallas Mavericks는 NFT 형태로 농구티켓을 판매하여 티켓 자체를 수집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NFT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며 유의미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보험시장은 NFT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NFT 보험 가입 대상, 기존 보험을 통한 부분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음⁶⁾
 - 기존에는 경매에서 미술품이 판매되기까지 미술품 보험을 가입했다면, NFT 거래에서는 NFT 거래 플랫폼이 물리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할 수 있어 플랫폼 차원에서의 보험은 불필요할 것임
 - 기존의 미술품 보험은 미술품의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만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었는데, NFT 예술 작품들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 또한 발생하지 않아 기존 미술품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 오히려 NFT 예술 작품들은 작품의 암호가 분실되거나 해킹당하는 경우 디지털 파일 자체는 존재하는 반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 사이버 보험은 데이터의 보안, 도난 등을 다루고 있으나,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위험은 물리적 손실(하드 드라이브가 화재로 손상을 입는 경우)이나 직원의 시스템 해킹 등에 그치고 있어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상황임
- 새로이 등장한 디지털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 손실 측정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나, NFT가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하여 향후 미래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FT의 등장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⁷⁾

6) howden(2021. 5. 24), "NFTs: Is There a Potential Insurance Solution?"

7) Capital Law(2021. 7. 16), "Insuring a New Asset Class: the NFT Problem"